월/요/광/장

이재민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스티븐 코비(STEPHEN R.COVEY) 박사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글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만의 어떤 원칙과 신념을 세우고 삶의 패러다임을 먼저 바꾸어야 하며 그 원칙과 신념에 따라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 남다른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특별한 성공 습관, 그리고 그 성공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일 수도 있고 메모하는 습관일 수도 있으며 매일 매일 쉬지 않고 연습하는 운동 일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비용을 절약하는 습관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런 일들을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자기 혼자만의 신념이나 철학이라 해도 크게 손해 볼 일은 아니다.

결국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 때로는 평범하고 무난한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험난한 길을 가야할 때도 있다. 어떤 길이나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라고 해서 자신도 그 길을 선택한다면 성공할 확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유형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든,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물건이 귀할수록 반드시 그에 걸 맞는 비용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런 비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나만의 생활습관과 신념이나 남다른 노력과 열정 아닐까 싶다. 바로 그런 생활습관과 신념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팍한 사람이니 이상한 사람이니 하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생활습관과 신념 때문에 그 사람이 정상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중원을 지배했던 황제건, 평범한 셀러리맨이건, 땅심을 일구던 농부건, 누구든 죽고 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그냥 들판에 핀 이름 없는 풀꽃처럼 살다가 떠나고 싶지 않다면, 남들이 쉽게 이해하고 용납해 주지 않을 자기만의 성공공식과 습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수한 열정이야말로 성공습관을 생활화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요소다. 무한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 지금은 비록 2등이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열정보다는 능력만을 믿고 1등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기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인 랠프 왈도 에머슨은 "전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했던 역사적인 순간들은 어떤 열정의 순간이었다"라고 했으며, 예일대 교수인 펠프도 "인생에서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 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열정을 갖고 자신의 직업에 매일 흥미를 갖는 일"이라고 했다. 모두 열정을 성공의 키워드로 삼았다.

열정은 보다 목표 지향적인 생활을 하여야 할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동계올림픽과 여자피겨선수권대회를 제패했던 김연아 선수. 그녀의 열정은 배경음악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 짓는 표정에서부터 읽을 수 있다고들 한다. 어떤 선수도 흉내 낼 수 없는 야무진 자세와 강렬한 눈빛 그리고 완성을 향한 집념은 경기시간 내내 장작더미에 붙은 불처럼 뜨겁게 타올랐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겨 약소국 대한민국을 일약 세계 피겨의 왕국으로 끌어올린 열정의 힘이었다.

며칠 전 우리나라 어린 소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010 FIFA U-17여자축구대회를 제패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어린 여자 축구선수들이 90분을 쉬지 않고 뛰고서도 30분간의 연장전과 피 말리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전 속에서도 꼭 이겨야하겠다는 집념을 불사른 것도, 또한 여자가 무슨 축구를 하느냐며 이상하게 쳐다봤던 따가운 시선을 극복했던 것도, 모두가 축구를 즐겁게 생활습관으로 계속 해왔던 어린 소녀들의 열정의 힘이었다.

열정은 자신이 하는 일이 매우 가치 있다고 믿을 때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가 될 때 큰 힘을 발휘한다. 이것 아니면 끝장이라는 절실한 상황과 마음이 다가올 때, 그리고 인생이라는 모험이 내가 갖는 마지막이자 단 한 번뿐인 기회라고 생각될 때 또한 하는 일에 흥미가 생기고 즐거움을 느꼈을 때 열정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용솟음쳐 올라 마침내 그 사람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는 힘이 될 것이다.

오늘도 내일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광주학생들과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하고 있는 공부를 즐겁게 생활습관화하고 불 같은 열정으로 부단히 노력할 때 여러분 모두 꼭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순천향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김황식 첫 전남 출신 국무총리에 바란다

정수 수립 이후 첫 전남 출신 국무총리가 탄생했다. 장성이 고향인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 인사청문 및 인준 절차를 통과하고 이명박 정부의 세 번째 총리로 정식 취임한 것이다. 우리는 김 총리가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에 비유되는 총리의 위상에 걸맞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성공한 국무총리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로서 지역화합의 상징적 차원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김 총리는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51일간 지속돼온 국정 공백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 이는 국가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내각을 통괄하는 총리로서의 능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만간 단행될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장관 인선 때 실질적인 임명제청권 행사는 '들러리 총리'가 되지 않는 출발점이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의 확립과 더불어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를 '공정한 사회'의 3대 조건인 동시에 자신의 역점분야로 제시했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소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총리가 됐으면 한다. 그러면 김 총리 스스로 포부를 밝힌 대로 '똑소리 나는 총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연·혈연·학연을 타파하는 공평무사한 인사제도를 정립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본다.

김 총리는 그동안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호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배려해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왜곡되고 편향된 지역정책을 바로잡아 주라는 얘기다. 그래야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견제·감시' 취지 맞게 제대로 해야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감 첫날 법제사법,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 23일까지 20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물가 불안과 교육·복지 등 민생현안, 4대강 사업에 따른 갈등, 천안함 사태에서 비롯된 남북한 관계, 북한의 체제변화 등 중차대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 대비한 여야의 전략을 들어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먼저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간에 벌이는 격돌은 마주 향해 달리는 기차와 같은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후퇴는 오히려 큰 문제를 부를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4대강 토목사업에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복지, 교육, 노동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예산은 축소돼 정부의 친서민 정책도 구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오히려 친서민 정책의 성과와 보완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최근 물가 상승, 국가부채 증가,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 침체, 대북 쌀지원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들 현안은 당연히 국회에서 먼저 논의되고 합리적 선택이 모색돼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근거없는 폭로, 무의미한 논쟁, 일방적 정부 엄호 등 구태가 되풀이된다면 한발짝도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생을 염두에 두고 엄한 비판을 하되 대안까지 제시해 결과까지 내놓는 국감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고, 잘못된 정책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길 여야에 요구한다.

법조칼럼

강효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단상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집 근처 극장을 찾아 일본 만화영화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공동설립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마루 밑 아리에티'라는 영화를 감상했다.

영화는 일본의 어느 한적한 교외의 저택 마루 밑에서 그들 만의 아담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러나 언젠가 인간에게 그들의 존재를 들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소인족(小人族) 가족에 대한 얘기였다.

영화는 병환 치료차 그 저택으로 이사 온 저택 주인 할머니의 외손자 '쇼우'가 소인족 가족의 똑똑하고 당찬 외동딸 '아리에티'를 발견하고 서로 마음을 열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엿본 저택의 가정부가 소인족 가족을 찾아 저택에서 쫓아내려 하면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을 섬세한 연출력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특히 그 도입부에서는 뛰어난 상상력으로 소인족의 눈에 비친 우리 인간의 저택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영화를 보면서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다.

저택 마루 밑에서 그들의 존재조차 숨겨가며 생활하고 있는 소인족은 분명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잊혀진 소수자를, 자신의 행동이 아리에티 가족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아리에티 가족을 쫓아내려고 한 저택 가정부는 이른바 다수의 횡포를 부리는 일부 집단을, 쇼우는 소수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다하는 건전한 다수의 모습을 각각 대변하고 있었다.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의사를 모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지만, 헌법 제101조, 제104조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담당하는 법관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뜻은 헌법, 법률의 해석 업무는 반드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만은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양보를 강요할 수 없는 가치를 보호하는 임무를 법관에게 맡긴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법관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한번쯤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법인 및 개인 채무자의 회생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해관계인 집회를 자주 개최하게 된다.

채무자가 작성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하여 찬반 의사를 밝히는 집회인데,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는 결국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아리에티의 눈에 비친 인간의 저택이 우리의 평소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것처럼 소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다수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진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인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수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에 대해 한번쯤 더 생각해보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가라앉히려는 노력을 다하였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짧은 영화였지만, 우리 사회의 마루 밑 아리에티에 대하여,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볼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고

나도팔

혁신도시, 교육특구 된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안대로 정상 추진됨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태동이 같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대에 건설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현재 전체 공정률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인 16개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혁신도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이전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까지 이전 핵심기관인 한국전력 등 8개 기관이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설계에 착수했으며 전파연구소, 우정사업정보센터, 사학연금관리공단, 해양경찰학교 등이 순차적으로 청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조기정착을 위한 이전지원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이전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족동반 이전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들의 근무 및 생활환경과 이전 후 희망사항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착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초기 활성화의 관건인 우수 교육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교육 인프라를 계획적·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자족형 교육거점 구축사업을 구체화해 올해 핵심적인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혁신도시 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등간의 혁신도시 교육환경 구축 목표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교육발전 협약 체결을 통해 연계협력의 목적 및 대상을 명확히 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각종 사업 협력을 위한 광역교육협력협의체 구성과 교육협력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마련하겠다.

또한, 혁신도시 미래환경 구축사업으로는 혁신도시 내 초기 교육자본 집중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공동혁신도시 건설 취지에 맞는 광주·전남 간의 미래교육 상생협력 운영방안과 혁신도시 초기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우수교육시설 유치 등도 추진하게 된다.

교육은 흔히 백년지 대계라는 말로 그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도 교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기관 임직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건설중인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각 분야에서 광주·전남의 획기적인 발전의 대역사가 열릴 것으로 본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버스 대낮 전조등 켜면 되레 상대방 시야 방해

요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희박한 통계만 믿고 우리나라같이 날씨가 좋은 나라에서 전조등을 대낮에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교통사고 원인을 보면 과속, 신호위반, 무리한 차선위반 끼어들기, 차간거리 확보 등 난폭한 운전 습관에 있음에도 대낮에 전조등을 켜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버스는 차체가 높기 때문에 승용차의 상향등과 같아 상대방의 시야를 방해하며 오르막 도로에서 상대차량의 전조등은 불편함이 매우 크다.

모든 차가 이렇게 대낮에 전조등을 모두 켜고 다닌다고 가정해 보면 전조등의 불빛으로 인한 부작용은 끔찍하다. 열이 발생하여 지구 온난화를 부채질하고 에너지도 낭비도 심하다. 교통규칙을 잘 지켜 교통사고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전조등을 켜고 상대방이 알아서 피해 다니라고 하는 행위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유럽을 비교하는데 거기는 날씨가 흐린 날이 많고 끝없는 직선도로 등 우리나라와 지역의 특성이 다르다. 유별나게 버스만 자기 편의주의에 빠져있다. 교통관계당국의 지도가 요청된다.

▲고을석·광주시 북구 용봉동

無等鼓

폴리슈머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양극화의 심화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만 200만 가구, 4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폴리슈머'(Polisumer)도 그 중 하나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긴급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계층이다. 정책(Policy)과 소비자(Consumer)를 합쳐 만든 신조어다.

통계청은 최근 국가통계를 분석해 내년도 '6대 폴리슈머'를 꼽았다. 우선 교육과 취업준비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불임률이 높고 태아의 합병증이 많은 고령산모(35세 이상)가 크게 늘었다. 전체 산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5%를 넘어섰다. 65세 이하의 '중년 치매환자'도 1만1000여명으로 5년새 54%나 증가했다.

공부를 하면서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알부자족(아르바이트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족시켜야 하는 대학생)'은 지난해 2학기 34만명으로 4년만에 87%가 늘었다.

아버지와 자녀로만 이뤄진 '싱글대디' 가정은 '싱글맘' 가정보다 갑절이나 빠르게 증가해 올해는 33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소외층'도 문제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자 수는 100명당 15.4명에 그친 반면 월소득 500만~600만원인 가구는 78.9명으로 격차가 컸다. 에너지 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에너지 빈곤층'은 2008년 130만가구나 됐다.

최근 배추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배추뿐만 아니라 호박·무·마늘·파·시금치 등 채소류 가격이 줄줄이 급등해 유통업계 조차 '미친 가격'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채소류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다. 이러다간 채소 소비 빈곤층을 폴리슈머에 포함시켜야할지도 모르겠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